

**2020년 1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 CFO 명형국 입니다.

BNK금융그룹의 2020년 1분기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1분기 경영실적에 대해 실적발표 자료의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2020년 1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20년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94억원, 22.2% 감소한 1,37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은행 부도/도산 감소에 따른 대손상각비 감소와 IB부문 실적 호조에 따른 수수료부문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전년도 1분기 부산은행 거액 총당금 환입 기저효과 (322억원) 소멸이 분기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자부문이익은 은행 순이자마진 하락 영향에 전년동기 대비 214억원, 3.8% 감소하였으며, 수수료부문 이익은 비은행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PF수수료 수익 호조에 전년동기 대비 147억원, 27.3%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부산은행 일회성 판관비 증가 영향에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지역 부도/도산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총당금 관리에 전년동기 대비 96억원, 10.3%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1분기 거액 총당금 322억원 환입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해 1분기 경상적 총당금전입액은 33.4% 감소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계열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부산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역 부도/도산 감소에 따른 대손비용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감소 영향 등에 전년동기 대비 257억원, 22.7% 감소한 87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전년도 1분기 일회성 거액총당금 환입 기저효과 322억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은 474억원으로 대손비용 안정에도 NIM 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4.2% 감소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의 경우 캐피탈이 안정적인 이익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나머지 비은행 계열사들은 금융시장 불안 영향에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은행 1분기 NIM은 부산은행이 1.94%로 전분기 대비 4bp 하락한 반면, 경남은행은 1.82%로 전분기 대비 1bp 상승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영향에 따른 신용카드 이자수익 감소에 전분기 대비 순이자마진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경남은행은 고금리정기예금 만기도래와 함께 핵심예금 증가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분기 순이자마진은 금통위 3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동성 핵심예금 유입과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도래 지속에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부산은행 1분기 원화대출금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경남은행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각각 1.6%, 2.9% 증가하였으나, 집단대출 중도금 만기 영향에 따른 가계대출 하락폭 확대에 전분기 대비 원화대출금 성장이 소폭에 그쳤습니다.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그룹 1분기 NPL비율은 1.08%로 양행 부도/도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은행 1분기 부실채권 미매각(2분기와 통합매각 예정) 영향에 전분기 대비 4bp 상승하였습니다.

1분기 그룹 연체율 또한 0.84%로 전분기 대비 신규연체 발생과 부실채권 미매각 영향에 16bp 상승했습니다.

1분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액은 832억원으로 지역 부도/도산 감소 영향에 전년동기 대비 96억원, 10.3% 감소하였습니다. 그룹 Credit Cost도 0.41%로 연간 경영계획 50bp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기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9.53%로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1bp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그룹 내부등급법과 2분기부터 시행되는 바젤 III 마무리 규제 적용 시, 자본비율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보통주 자본비율은 향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배당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2019년 주당 배당금을 전년대비 60원 증액한 360원, 배당성향은 20.9%로 전년대비 1.4%p 상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종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감독당국의 관리강화로 배당 정책의 확대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룹의 배당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분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금년도 그룹 경영계획 수정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를 당초 6,100억원에서 16.4% 감소한 5,100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20년 경영계획 수립 당시의 상황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경영환경 및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경영목표를 수정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 그룹 총자산 성장률을 3.5%,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원화대출금 성장 목표를 각각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불확실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성장 속도를 조절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룹 NIM 목표는 금통위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추가 금리하락 가능성을 반영하여 당초 2%에서 1.85%로 현실화 하였으며, 그룹 대손비용율(Credit Cost) 목표도 당초 0.48%에서 0.50%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의 선제적인 경영계획 수정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 의사결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올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정된 연간 경영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